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 나타난 심신이론과 18세기 생물학

조영란

토론토대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철학과

La Mettrie's Mind-Body Theory in *L'Homme Machine* and Life Sciences in the Eighteenth Century

JO Young Ran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Toronto

ABSTRACT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he nature of man' was the critical subject to the *philosophes*. Julien Offray de La Mettrie(1709-51), French physician-*philosophe*, argued his mind-body theory on the basis of his medical experiences and scientific knowledge. He developed his materialistic view to explain man's soul. His infamous work *L'Homme Machine* in which he dealt with his mind-body theory is the source for understanding of La Mettrie's philosophy.

In this paper I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body theory of La Mettrie in his *L'Homme Machine* and the eighteenth century biology. First, as a background of his theory, I discuss the significance of his career as a physician. Then, his characteristic argument is considered: soul is body-dependent, man is an animal, and mind is a property of organized matter of man. Also, I consider some of his biological experiments and theories, and point out their meanings in his thought.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even though La Mettrie was the first man that materialized soul and explained life and mind as properties of organized matter overcoming the dilemma of mechanical philosophy, and though his theory was influenced by the 'sciences de la vie,' it was not the only solution of mind-body problem in the eighteenth century milieu.

I. 머리말

18세기 서유럽에는 계몽사조라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계몽사조의 주역인 ‘계몽철학자’(philosophes)들은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원리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은 전통, 종교적 교리 및 권위 위에 세워진 낡은 사회 질서와 제도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으며, ‘신학과 신앙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성에 의한 법과 질서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이성이란 자연과학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성의 법칙은 종종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그들은 아직도 과학혁명이 진행 중이고 자신들이 ‘위대한 혁명의 시기’를 완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도 적용되어 사회의 진보와 인간의 행복에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에 많은 관심을 쏟았고 과학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¹⁾

라메트리(Julien Offray de La Mettrie, 1709-51)도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던 계몽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²⁾ 그는 도덕과 종교가 귀족 계급과 고위 성직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들의 물리적인 억압을 지탱해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인민들에게 자연적인 본능과 기존의 사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직관을 억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에 반해 자연의 탐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의학 및 인간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유물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당시에 알려져 있던 해부학, 생리학 등의 지식을 토대로 그 때까지 종교의 그늘 아래에 남아 있던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끌어냈다. 그는 실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물질이며 ‘인간’도 결국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 사회적 정의, 계몽 사상의 전파와 계몽철학자의 역할, 새로운 사회의 형성과 유지 등 당시의 계몽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³⁾

라메트리의 사상 체계 속에서 인간의 영혼(l'âme)⁴⁾을 설명하는 문제는 도덕과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첫째 과제였다. 철학사상 영혼의 본질은 고대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의되어 오던 주제 중의 하나였지만, 주로 종교적 믿음과 관련지어 생각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은 영혼을 신이 인간에 개입하는 영역으로 남겨두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도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써 물질 자체

1) 계몽사조에 대한 개설적인 책으로서 과학과의 관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 저술로는 Norman Hampson, *The Enlightenment* (New York, 1968); Peter Gay, *The Enlightenment: An Interpretation. The Rise of Modern Paganism* (New York, 1966); Ernst Cassirer, *The Philosophy of the Enlightenment* (Princeton, 1951); Paul Hazard, *European Thought in the Eighteenth Century. From Montesquieu to Lessing* (Cleveland, 1963); Thomas L. Hankins, *Science and the Enlightenment* (Cambridge, 1985) 등이 있다.

2) 라메트리 사상 일반에 대해서는 Raymond Boissier, *La Mettrie, Médecin, Pamphlétaire et Philosophe* (Paris, 1931); Pierre Lemée, *Julien Offray de La Mettrie, Médecin, Philosophe, Polémiste* (Mortain, 1954)를 참고할 것.

3) 라메트리의 사회 사상에 대한 논의는 R. Boissier, 앞의 책, pp.77-132; Ann Thomson, *Materialism and Society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La Mettrie's Discours Préliminaire* (Geneva, 1981)를 참조할 것.

4) ‘영혼’이라는 용어는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이 주는 종교적인 어감 때문일 것이다. ‘영혼’ 대신에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은 ‘정신’(spirit 또는 mind)이다. Jerome A. Shaffer,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N.J., 1968), pp.1-3. 라메트리는 ‘영혼’이라는 말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럴 경우 라메트리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에 영혼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영혼의 근원을 물질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버리거나 하였다.⁵⁾ 그러나 라메트리는 이전 철학자들이 한 어떠한 설명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인간의 영혼에 관한 철학자의 체계는 두 가지로 환원될 수 있다. 첫째는 더 오래된, 유물론(le matérialisme)의 체계이고 둘째는 유심론(le spiritualisme)의 체계이다. ...그들 「형이상학자들」은 영혼을 물질화하였다기보다는 물질에 영혼을 불어 넣었다.⁶⁾

그는 유물론만이 진정한 철학이며, 진정한 철학자라면 영혼도 유물론의 체계 내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질이 인간의 영혼까지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영혼을 인체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유물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물론의 체계 안에서 인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유물론의 영역을 인간의 정신에까지 확장한 것은 라메트리에게서 비롯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유물론의 발전은 18세기 후반의 디드로(Denis Diderot, 1713-84), 돌박(Baron Paul Dietrich von D'Holbach, 1723-89), 엘베시우스(Claude Adrien Helvétius, 1715-71), 카바니(Pierre Jean George Cabanis, 1757-1808) 등 프랑스 유물론자들로 이어져 구체제와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

그러나 라메트리의 이같은 독창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도 때문에, 그는 18세기 이래 제대로 연구도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난과 편견 속에 방치되어 왔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약간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⁹⁾ 그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가 교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신들도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¹⁰⁾ 또한 19세기 후반 이후의 연구들 대부분은 그의 사상을 당시의 철학적

5) 18세기 물활론에 대해서는 Lester S. King, "Basic Concepts of Eighteenth-Century Animism,"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14(1967), 797-807을 참조할 것. 특히 대표적인 물활론자인 슈탈(Georg Ernst Stahl, 1660-1734)에 대해서는 L.S. King, "Stahl and Hoffman: A Study in Eighteenth Century Anim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19(1964), 118-130; L.S. King, *The Philosophy of Medicine: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Harvard U. Pr., 1978), pp.143-151을 참조할 것.

6) *L'Homme Machine, Oeuvres Philosophiques de Mr. de La Mettrie* (Berlin, 1774), tome II, pp.269-356에 수록(이하 HM으로 약칭), 특히 pp.285-286(p.85). 팔호 안 숫자는 1748년 Leyden edition의 영역본 *Man A Machine* (Chicago, 1912)tr., G.C. Bussey의 페이지를 가리킴.

7) 고대 원자론자에서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유물론의 역사에 대한 개설서로는 F.A. Lange, *History of Materialism and Criticism of Its Present Importance* (London, 1925)가 있다.

8) R. Boissier는 라메트리의 이론이 D'Holbach와 Helvétius의 유물론으로 성공적으로 계승되었다고 파악하였다: R. Boissier, 앞의 책, p.170. 라메트리와 Diderot, D'Holbach의 관계에 대해서는 Pierre Naville, *D'Holbach* (Paris, 1943); 특히 Diderot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Aram Vartanian, "La Mettrie and Diderot Revisited: An Intertextual Encounter," *Diderot Studies* 21(1983), 155-197; 라메트리와 Cabanis에 대해서는 A. Vartanian, "Cabanis and La Mettrie,"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 155(1976), 2149-2166을 참조할 것.

9) 18세기 동안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이 나왔다. 그것의 목록은 A. Thomson, 앞의 책, pp.266-269를 참조할 것. 프랑스 혁명 후 라메트리는 1860년대까지 거의 잊혀져 있다가, '신유물론'(néo-matérialisme)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Assézat, Lange, Du Bois-Reymond 등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되었고 Poritzky, Bergmann, Lemée에 의해서 연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10) 라메트리의 생애에 대해서는 Frederick the Great, "Eulogy," *Man A Machine* (Chicago, 1912)수록과 P. Lemée, 앞의 책을 참조할 것. 라메트리의 편지는 "Epître à Mon Esprit"(1749)과 "Réponse à l'Auteur de la Machine Terrasse"(1749) 등과 최근에 밝혀진 것들을 합하여 여덟 편만이 남아 있다. 그 이유로는 당시의 라메트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그의 괴팍한 성격, 그리고 그에게 열성적인 추종자가 없었고, 그가 요절했던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 Thomson, "Quatre Lettres Inédites de La Mettrie," *Dix-Huitième Siècle* 7(1975), 5-19.

전통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당시의 과학과의 관련을 살펴 보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점도 일차 사료의 빈곤과 함께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부족했던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메트리에 대한 여러 저술들이 그의 철학적 견해가 여러가지 과학적 사실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지만, 그가 이용한 과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또는 그 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과학 지식과 그의 사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라메트리는, 그가 표현하였듯이, “자연을 탐구하고 그로부터 얻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자연과학’(la science de la nature)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라메트리 철학의 기초가 되는 심신이론과 18세기 과학, 특히 생물학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라메트리의 저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심신이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인간기계론」(*L'Homme Machine*)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절에서는 라메트리가 의사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인간기계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 보았으며, 3절에서는 「인간기계론」의 전개를 따라 심신이론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의학 및 생물학의 성과들과 그 성격을 다루고 그것이 라메트리의 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의사이자 계몽철학자였던 라메트리에게서 볼 수 있는 과학과 사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18세기 계몽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과학과 사상의 관계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라메트리: 의사였던 계몽철학자(le médecin-philosophe)

라메트리는 파리대학 의학부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733년 랭스(Rheims)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후 그는 당시 유럽 의학의 중심지였던 레이든(Leyden)으로 가서 부르하브(Hermann Boerhaave, 1668-1738)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곳에서 특히 의학에서 관찰과 실험의 가치를 강조한 부르하브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부르하브는 의학이 최초의 원인이나 최종 원인을 구하는 무용한 학문이 아니라 인체의 작용을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의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부르하브는 자연을 연구하는 다른 과학의 발달이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학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임상 실습과 식물학, 역학, 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의 교육을 함께 시행하였다.¹¹⁾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론과 실습 모두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러한 전통이 없었으므로, 부르하브의 교육은 라메트리의 의학 수업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¹²⁾ 프랑스로 돌아온 후 그는 개업의로 활동하면서 부르하브의 주요 저술들을 번역하였다. 1743년에는 그 자신이 관찰한 33가지 경우의 임상적 결과를 「실제 의학의 관찰들」(*Observations de Médecine Pratiqu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라메트리가 레이든에서 받은 의학교육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그는 부르하브의 의학교육을 통해 형이상학적 공론을 가치없는 일로 배격하고,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경험과 관찰이 우리의 유일

11) 부르하브에 관해서는 G.A. Lindeboom, *Herman Boerhaave, The Man and His Work* (London, 1968); 특히 그의 의역학 및 의화학에 대해서는 L.S. King, 앞의 책 (주5), chap. 4-5를 참조할 것.

12)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의학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T. Gelfand, “Empiricism and 18th Century French Surgery,”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51(1970), 41-53을 참고할 것.

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경험과 관찰은 철학자인 의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의사가 아닌 철학자들의 작업에 의해서는 알 수 없다”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¹³⁾ 관찰과 실험은 라이든 시기 이후 라메트리가 인간을 연구하는 데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었으며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본질도 공허한 사색이나 형이상학적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그의 태도를 결정해 주었다. 그는 영혼에 대한 이론이 관찰이나 실험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만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저술의 많은 부분을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 할애하였던 것이다.

두번째 측면으로, 부르하브는 의학을 다른 자연과학들과 분리시켜서는 안되며 다른 과학 분야에서의 발견을 의학체계 속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같은 강조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라메트리의 심신이론은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라메트리는, 역학과 화학이 의학에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르하브의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인체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일반 생리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또 한편 역학의 메카니즘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¹⁴⁾

라메트리의 의학 수업과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두 측면 외에 좀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의학에서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 고대 이래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을 신이 불어 넣어준 ‘영혼’이라고 생각했으며, 영혼의 본질보다는 사후 세계에서의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광인이나 정신질환자는 악마가 씌웠거나 마귀에 홀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무신론적인 견해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죄악의 대가나 악마의 짓이 아니라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무렵에는 의사들에 의해서 신경계에 대한 해부학 및 생리학의 연구와 더불어 정신병리 및 치료법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⁵⁾

이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영혼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하는 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르하브도 젊어서부터 육체와 정신의 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경질환이 신경섬유의 교란에 의한 것이라는 의역학(醫力学, iatromechanics)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부르하브의 뒤를 이어 레이든의 의학부 교수가 된 하움(Jerome David Gaub, 1705-80)도 질병 상태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의학 논문을 썼다.¹⁶⁾ 이러한 경향은 라메트리 자신이 「영혼의 자연사」(*Histoire Naturelle de l'Ame*)와 「인간기계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미(Guillaume Lamy, 1640-?)에게서도 볼 수 있다. 라미는 인체의 구조에 관한 비교를 통해 ‘감각 영혼’(l'âme sensible)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인 작용이라고 밝혔다. 그러

13) HM, pp.288-289(p.88).

14) Wellman은 이같은 점을 부르하브가 라메트리에게 미친 영향으로 파악하였다: K. Wellman, "La Mettrie's Institutions de Médecine: A Reinterpretation of the Boerhaavian Legacy," *Janus* 72(1985), 283-303.

15) 이를 포함하여 18세기 동안 의학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E.H. Ackerknecht, *A Short History of Medicine* (New York, 1968), chap.11을 참조할 것.

16) 18세기 초 레이든 대학은 의학의 중심지였음은 물론, 신경계에 대한 연구의 중심지로서 전 유럽의 많은 의사들을 끌어들였다: Mary A.B. Brazier, *A History of Neurophysiology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rom Concept to Experiment* (New York, 1984), pp.110-126; 하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L.J. Rather, *Mind and Body in Eighteenth Century Medicine. A Study Based on Jerome Gaub's De Regimine Mentis* (London, 1965)이 있다.

나 라미는 이러한 견해를 ‘합리적 영혼’(l'âme raisonnable)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불멸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종교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의학적 관찰과 이론을 기독교적인 믿음과 분리함으로써 종교적 권위와의 마찰을 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냈던 또 다른 의사로서 몽펠리에(Montpellier) 의학부의 모벵(Maubec, ?-?)을 들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뇌와 신경의 구조에 관한 연구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뇌의 조직과 기관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서로 같은 작용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뇌의 섬유의 운동이, 비록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사고를 좌우한다고 주장하고 뇌섬유의 운동을 일으키는 감각을 지식의 근원이라고 간주했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고티에(Jacques Gautier, ?-1785), 루이(Antoine Louis, 1723-92)와 르 카뮈(Antoine Le Camus, 1722-72) 등에서도 볼 수 있다.¹⁷⁾

라메트리는 이러한 의학 연구의 분위기에 있었다. 그는 1737년 현기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정신질환이 신체적 원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기증론」(*Traité du Vertige*)을 자신의 관찰들에 기초하여 저술하였다. 또 「인간기계론」에서도 정신의 질환이나 상태가 신체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관찰을 기술하였다. 그의 영혼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영혼이 신체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다는 설명은 당시에 출판되던 의학적 저술에서의 설명과 비슷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의사들 중 라미 이외의 사람들의 논문들도 라메트리가 읽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8세기 초 의학의 중심지 라이든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의사들이 신체와 정신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라메트리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 자신이 그것에 대한 새로운 답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메트리가 의사였다는 점은, 다른 계몽철학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정신의 기능을 오로지 신체적인 설명으로써만 할 수 있게 해 준 배경이 되었다. 이는 “인간의 유물론적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의학 연구”¹⁸⁾ 밖에 없으며, 디드로가 지적하였듯이, 18세기에 “해부학자, 자연학자, 생리학자이자 의사가 되지 않고서는 훌륭한 형이상학자 또는 도덕자가 되기는 몹시 어려운 일”¹⁹⁾이었기 때문이었다.

III. 「인간기계론」을 통해 본 라메트리의 심신이론

라메트리는 1745년 「영혼의 자연사」를 파리에서 출판한 이래 죽기까지의 6년 동안 의학과 철학의 주제를 넘나들며 집필 활동을 하였다. 그가 쓴 일련의 철학적 저술들은 결국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자연사’를 밝히기 위한 연구였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과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 1747년에 출판된 「인간기계론」이었으며, 라메트리의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다.

17) Maubec에 대해서는 A. Thomson, 앞의 책, pp.22-30을 참조할 것. 고티에, 루이스, 르 카뮈 등에 대해서는 A.J.L. Jourdan, *Dictionnaire des Sciences Médicales, Biographie Médicale* (Paris, 1820-25)을 볼 것.

18) 저자 미상, *Essai sur le Raisonnement*(1744). 이 점에 대해서는 A. Thomson, 앞의 책, pp.31-32를 참조했음. Lémée는 이것이 라메트리의 저술이라고 결론지었다.

19) D. Diderot, *Réfutation d'Helvétius in Oeuvres Complètes*, ed. J. Assézat and M. Tournier, (Paris, 1875-7) 20 vols., vol. II, p.322.

「인간기계론」은 라메트리가 레이든에 있을 때 뒤작(Elie Luzac, 1723-96)에 의해 출판되었다.²⁰⁾ 이 책은 제목에 사용된 ‘기계’(la machine)라는 용어 때문에, 인간을 마치 데카르트의 ‘동물기계(la bête machine)’와 같이 파악하는 저술로 흔히 생각되었다. 그의 이론이 데카르트의 동물기계 개념을 그대로 인간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기계’의 개념은 어쨌든 당시 기독교적인 믿음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1747년 초부터 레이든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라메트리는 또 다른 도피생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48년 초 라메트리는 검열이나 종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도피처를 제공해 주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1712-86)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연구와 집필생활을 계속하다가 1751년 그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 그가 출판의 자유와 지적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었던 것으로 유명했던 레이든에서 조차 쫓겨났다는 사실은 당시 그의 「인간기계론」이 얼마나 큰 반대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인간기계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인간기계론」은 체계적인 구성에 따라 씌어진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연구의 방법, 영혼의 신체의존성, 동물로서의 인간, 정신의 기원, 그리고 신체유지의 메카니즘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라메트리는 로크, 라이프니츠주의자들, 그리고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주의자들(les Cartésiens)의 물질과 정신에 관한 ‘가설’을 비판하고, “데카르트, 말브랑쉬, 라이프니츠, 볼프 같은 사람들의 심오한 명상이나 저작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과거의 사상을 발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는가를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주장하였다.²¹⁾ 또 그는 인간을 연구하는 데는 이러한 철학자들이나 플뤼쉬(Noel Antoine Pluche, 1688-1761) 같은 자연신학자를 포함한 신학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즉 경험과 관찰에 의존해서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이 라메트리의 사상이 로크의 영향을 이어받은 프랑스 감각주의의 전통에 속해 있다거나 라이프니츠의 단자론과 유사하다든가 또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계승한 것이라는 등의 지적을 하였지만,²²⁾ 라메트리 자신은 오히려 그들이 인체의 메카니즘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그들의 사상은 공허하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²³⁾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논의가 생물에 대한 과학을 토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20) 뒤작은 그가 출판한 「인간기계론」이 큰 물의를 일으키자 같은 해에 *L'Homme Plus Que Machine*을 써서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였다. 「인간기계론」의 출판에 얽힌 이야기는 W.T.M. Thijssen, “Some New Data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L'Homme Machine and L'Homme Plus Que Machine,” *Janus* 64(1977), 159-177을 볼 것.

21) *HM*, p.290(p.90).

22) K. Wellman은 로크의 감각주의가 라메트리의 유물론의 성립에 열쇠였다고 주장하였다: K. Wellman, 앞의 글, p.300. 프랑스 감각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R.J. Richards, “Influence of Sensationalist Tradition on Early Theories of the Evolution of Behavior,”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1(1979), 85-105; J.W. Yolton, “French Materialist Disciplines of Lock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5(1987), 83-104; 라이프니츠와의 관계는 J.F. Falvey, “The Aesthetics of La Mettrie,”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 87(1972), 397-479; I.O. Wade, *The Structure and Form of the French Enlightenment* (Princeton, 1977), 2 vols., vol. I, pp.544-545; 데카르트와의 관계는 T.S. Hall, *History of General Physiology* (Chicago, 1969), 2 vols., vol. II, chap. 32를 참조할 것.

23) 기존의 심신이론에 대한 비판은 *HM*, pp.185-290(pp.85-90)에 나타나 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기계이어서, 이전에는 이 기계에 대하여 알 수도, 따라서 규정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선형적으로(*à priori*) 행했던 모든 연구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다. ... 그러므로 오직 후형적으로(*à posteriori*) 또는 인체의 기관들로부터 영혼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라메트리에게, 영혼은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과학의 대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체라는 미궁을 탐구하는” “의사만이 영혼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메트리는 우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을 통하여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는 “경험의 지평이를 짚고, 철학자들의 무용한 모든 의견들을 꺾어 놓겠다”고 하면서 약물, 체액, 질병, 수면 및 불면, 아편, 커피, 음식, 기후 등이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²⁵⁾ 신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정신 상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예시하고 그는 “그러므로 영혼의 여러가지 상태는 항상 육체의 여러가지 상태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²⁶⁾ 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은 교육의 진행을 따를 뿐 아니라 신체의 발달을 따른다”면서 영혼의 신체의존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더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강한 정신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²⁷⁾

이후의 라메트리의 논의는 인간과 동물의 비교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과 동물의 비교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제일성(*l'uniformité*)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는 인간이 동물과 같은, 그러나 좀더 복잡한 동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동물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었다.

먼저 라메트리는 비교해부학(*l'anatomie comparée*)의 지식으로 인간도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

정신의 의존성과 그 원인을 좀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비교해부학을 이용하도록 하자. 인간과 동물의 내부를 열어보자. 만약 인간과 동물들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비교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²⁸⁾

그는 특히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생각되었던 뇌의 비교해부학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곤충, 어류, 조류, 네발짐승 그리고 인간 등에서 뇌의 크기, 뇌회(*la convolution*)의 정도, 뇌량(*corpus callosum*)의 유무 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고등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의 구조는 매우 비슷하며,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복잡성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뇌의 작용의 다양성은 연성(*l'amolesse*), 줄무늬체(*corpora striata*)의 상태 등과 같은 질적인 차이로 해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저능아나 광인의 경우는 뇌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⁹⁾

그는 “비록 우리의 약한 이해력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원인과 결과간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뇌의 비교해부학적 차이로부터 동물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유추할 수

24) HM, p.289(p.89).

25) 영혼의 신체의존성에 대한 설명은 HM, pp.290-298(pp.90-97)에 나타나 있다.

26) HM, p.298(p.97).

27) HM, p.296(p.95).

28) HM, pp.298-299(pp.97-98).

29) HM, pp.299-300(pp.98-99).

있다”고 하였다.³⁰⁾ 그는 암만(Johann Conrad Amman, 1669-1730)의 발견을 언급하면서 아만의 방법으로 고등동물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어의 사용이 인간을 동물적인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고 동물과 구별되는 정신을 갖게 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전이를 언어의 사용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발달하는 과정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³¹⁾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물과 달라지게 되었다. 맨처음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자연적인 본능이 비교적 약한 동물이었다. 인간은 조금씩 자신의 감각과 욕구를 발음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모든 것을 소리나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한 말 또는 소리의 반복은 감각기관과 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해졌으며, 그와 동시에 눈으로는 그 자의적인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정신을 얻는 데 감각을 사용하고, 지식을 얻는 데 정신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의적인 기호에 의한 자극이 반복됨으로써 뇌에 생긴 흔적은 대상을 구별하고 연상하게 되며, 대상의 이미지와 흔적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그 차이의 기호가 뇌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을 때 영혼은 필연적으로 그 관계를 고찰하게 된다고 하였다. 라메트리는 대상과 기호와 차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과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은 뇌에서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그와 결부된 명칭이나 기호없이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영혼의 모든 것이 상상력의 작용이며 영혼의 모든 부분이 단지 상상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판단, 추론, 기억 등은 영혼의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지 눈에 그려진 대상의 이미지가 마술램프로 투영되는 수직막과 같은 변형일 뿐이다. ... 항상 상상력만이 통각한다. 대상을 특징짓는 말과 숫자와 더불어 대상 자체를 그리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이런 이유로 상상력이 바로 영혼이다. ... 상상력은 추론하고 판단하고 통찰하며 비교하고 조사한다.³³⁾

상상력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했던 라메트리는 이제 정신의 모든 능력을 상상력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과 동물간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던 영혼을 단지 좀더 복잡한 신체 조직인 뇌의 산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영혼의 모든 능력은 뇌와 온몸의 적절한 조직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분명히 조직 그 자체”라고 하면서 유기체의 조직이 정신을 존재하게 한다고 보았다.³⁴⁾ 그는 인간의 영혼을 물질의 조직의 수준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속성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라메트리는 유기체의 조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기체를 이루는 조직된 물질에는 운동의 원리가 나타난다. 즉 생물체를 이루는 물질에는 운동의 원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신체로부터 분리된 조직이나 근육도 얼마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분리된 생물체의 조각은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개체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조직된 물체의 일부나 근육 섬유는 그 자체에 속해 있는 운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며³⁵⁾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30) HM, p.301(p.100).

31) HM, pp.301-308(pp.100-107)에서 언어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된 정신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32) HM, pp.308-311(pp.107-109).

33) HM, pp.308-310(pp.107-108).

34) HM, p.330(p.128).

35) HM, p.333(p.130).

전신의 또는 조각난 부분의 운동원리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규칙한 운동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규칙적인 운동을 일으킨다. ... 만약 누가 내게 우리 몸 어디에 이 내재하는 힘(*la force innée*)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은 고대에 유조직(*le parenchyme*)이라고 불리우던 것, 즉 조직을 이루는 바로 그 물질에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것이다. 이는 정맥, 동맥과 신경을 제외한 신체 부분의 물질에, 한마디로 말해서 전신의 조직에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몸의 각 부분은 필요에 따라 다소의 활동적인 힘을 그 자체에 포함하게 된다.³⁶⁾

그는 반사작용의 예들과 불수의 운동의 예들이 “인간기계의 활기있고 동물적이며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운동”들로서 “운동원리의 활동에 의한 순전히 기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수의운동은 뇌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온몸에 존재하는 운동원리는 반사나 불수의 운동과 같은 기계적인 운동과 수의운동을 수행하는 힘이었다.³⁷⁾

나는 이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종속된 힘[기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원리]에 대해서는 더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 생기를 주는 미묘하고 놀라운 힘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과 기쁨과 열정과 사색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뇌는 다리가 걷기 위한 근육을 가지고 있듯이 생각하기 위한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히포크라테스가 영혼이라고 부른 이 맹렬한 원리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이 원리는 신경의 근원인 뇌에 있으며, [뇌는] 이 원리에 의해 나머지 온몸에 대한 제어력을 행사한다.³⁸⁾

그는 뇌가 인간기계의 중추이며, 수의운동을 통제함으로써 전신을 통제한다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한편 라메트리는 인간이 단지 동물일 뿐이며 스스로 운동을 계속하는 기계라는 것을 더 잘 증명하려면 그러한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체는 그 자신의 태엽을 스스로 감는 기계이다. 따라서 이것은 영속적인 운동의 살아있는 상이다. 열에 의해 자극되는 이 운동은 음식에 의해서 지속된다”고 하였다.³⁹⁾ 그는 인체 조직의 운동은 심장이 순환시키는 피를 통하여 전해지는 열에 의해서 유지되며, 열이 전하는 자극, 즉 진동(*l'oscillation*)에 의해서 신체 각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열이 생물체의 기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며 운동원리를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⁴⁰⁾

몸의 조직 외에, 라메트리는 교육 또한 정신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⁴¹⁾ 그는

조직(*l'organisation*)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헛되이도 도덕에 관한 책의 저자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특성을 평가하는 데는 실패하고 성찰과 술책에 의해 얻어진 재주만을 평가하였다.⁴²⁾

라고 비판하면서 인체의 메카니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도덕을 이끌어 낼 것을 주장하였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는 상상력이, 인식된 개념과 대상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얻고 또 그로부터 생긴 새로운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정신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생

36) *HM*, p.334(p.131).

37) *HM*, pp.333-335(pp.130-132).

38) *HM*, p.335(p.132).

39) *HM*, p.293(p.93).

40) *HM*, pp.339-341(pp.135-136).

41) *HM*, pp.311-316(pp.109-114)에서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42) *HM*, p.311(p.109).

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뇌에 의도적인 자극을 주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교육에 의해 인간의 ‘도덕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⁴³⁾ 그는 도덕이 본래 인간에게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개에게서도 볼 수 있는 후회하는 행동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설명했다.⁴⁴⁾ 그는 선악에 대한 의식조차도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며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제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간이라고 더 비싼 흙으로 빚어진 것은 아니다. 자연은 오로지 한 종류의 반죽을 썼으며, 단지 그 효모만을 달리 했을 뿐이다”⁴⁵⁾라는 귀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연의 제일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직의 다양성에 기인한 정신의 출현을 역설하였다.

조직된 물질은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이 차이만이 무기물과 다른 점이다. (누가 감히 이 가장 명백한 관찰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충분히 증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동물들의 조직의 다양성에 달려있다. 이것[조직의 다양성]이면 실체와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충분하다.⁴⁶⁾

이렇듯 라메트리에게 있어서 자연의 제일성과 조직의 다양성은 그의 심신이론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었다.

IV. 라메트리에의 심신이론에 나타난 18세기 생물학

앞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라메트리에의 심신이론은 조직된 물질에 나타나는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가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다음의 한 인용문이다. “사고력은 조직된 물질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전기, 운동 능력, 불가침입성(l'im-pénétrabilité), 그리고 외연 등과 같은 물질의 한 속성이라고 생각된다.”⁴⁷⁾ 라메트리에의 물질과 그것의 운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17세기 기계적 철학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라메트리에에게서도 전세대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심신이론이 다른 철학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단순히 확대한 것도 아니었다. 인간의 정신이 조직된 물질의 속성으로써 나타난다는 주장은 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이 물질적인 실체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과학 즉 생물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론이 옳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기계적 철학은 운동하는 물질로써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기체의 특수성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 그런 반면, 17세기 동안 축적된 자연사의 자료들과 18세기에 이르러 밝혀진 여러가지 생물에 대한 발견과 실험들은 새로운 자연의 철학 속에 포함되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데카르트가 18세기에 태어나 “관찰과 실험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라메트리에의 지적은 올바른 자연철학의 형성에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암시하는 말이었다.⁴⁸⁾

43) 도덕에 대한 생각이 HM, pp.316-322(pp.114-121)에 나타나 있다.

44) HM, p.317 (p.115).

45) HM, p.319(p.117).

46) HM, p.345(p.140).

47) HM, p.348(pp.143-144).

48) HM, p.347(p.142).

영혼을 물질로서 파악한 라메트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데 철저히 경험에 의존하여 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당시의 생물에 대한 연구들 즉 인체를 다루는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자연사 등을 증거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우선 그는 의학에서의 이론과 경험들을 빌어 자신의 주장이 실제와 잘 맞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는 4체액설을 빌어, 체액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 성격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했다.⁴⁹⁾ 그리고 갈레노스의 말을 인용하여 “약만이 인간의 육체와 더불어 정신과 도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약이 몸의 체액을 변화시키고 그것은 영혼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⁵⁰⁾ 그는 아편, 커피, 술, 음식물 등이 감정이나 정신 상태,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좌우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편은 그 사용량에 따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의지력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했다.⁵¹⁾ 이것은 당시 의학에서 신체의 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변화와 약물 투여에 따른 정신적인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그것의 신체의존성에 대한 사례 등의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히스테리나 우울증 등이 내장기관의 손상이나 장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몸의 마비 증세를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치료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의사로서의 경험과 환자들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⁵²⁾

이와 같은 의학적 경험들 외에, 라메트리가 증거로서 제시한 것으로 비교해부학이 있었다. 해부학의 오랜 역사 위에 새롭게 분화되어 나타난 비교해부학을 이용하여, 그는 동물과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생각되었던 뇌의 비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⁵³⁾ 그는 양적인 기준으로 뇌의 유무, 뇌의 크기, 질량에 대한 뇌회피의 정도, 뇌량의 유무 등과 질적인 기준으로 연성, 줄무늬체의 발달 정도 등을 비교하였다. 그는 근육 수축과 신경계의 해부학과 병리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반사 개념의 형성에 기여한 윌리스(Thomas Willis, 1621-75)의 뇌에 대한 연구들을 뇌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문헌으로 소개하였다. 라메트리는 윌리스가 뇌의 크기 뿐만 아니라 뇌를 구성하는 연성과 지능의 관계, 그리고 줄무늬체의 결합과 마비성 질환, 지능과의 관계에 관하여 주목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⁵⁴⁾ 이같은 설명을 통하여 그는 정신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뇌가 고등한 동물의 뇌와 구조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인간도 동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한편 그 크기나 복잡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인간에게만 사고라는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 라메트리는 당시의 생물에 대한 연구들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실험이나 이론을 다루었다. 그것들은 절단된 생체 일부의 운동과 관련된 폴립의 재생 문제와 자극감수성에 대한 문제, 생물의 발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생물 종의 전이에 관한 문제 등이었다.⁵⁵⁾

49) HM, p.290(p.90).

50)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4체액설은 18세기에도 여전히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Bachmann, “Neo-Galenismus,” *Janus* 7(1902), 455-459.

51) HM, pp.292-296(pp.92-95).

52) HM, pp.290-291(pp.90-91).

53) HM, pp.298-300(pp.97-99). 란치시(Giovanni Maria Lancisi, 1654-1720) 등은 뇌량이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다: M.A.B. Brazier, 앞의 책, p.123.

54) 윌리스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63-66을 볼 것.

55) 18세기 생물학의 이같은 논쟁점에 대해서는 J. Schiller, “Queries, Answers, and Unsolved Problems in Eighteenth Century Biology,” *History of Science* 12(1974), 184-199를 참고할 것.

라메트리는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영혼을 부인하면서, 당시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이었던 트랑블레(Abraham Trembley, 1710-84)의 폴립에 대한 실험을 증거로 들었다.⁵⁶⁾ 1740년경 트랑블레는 우연히 고착성의 녹색 폴립이 빛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식물인지 또는 동물인지를 알기 위해 여러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폴립의 몇 가지 특성과 함께, 폴립을 여러 쪽으로 자르면 각각의 조각들이 원래의 개체로 완전하게 재생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동물의 “알 또는 암컷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생식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으므로 트랑블레의 이같은 발견은 과학학회나 살롱 등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서유럽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트랑블레의 발견은 “폴립의 일부가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 재생된다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종교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다른 재료로 재생의 실험을 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라메트리는 트랑블레의 발견을 물질에 대한 영혼의 종속성의 근거로 생각했다. 그는 “트랑블레의 폴립을 관찰해 보아라. 폴립은 그 자체에 재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⁵⁷⁾ 정통적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분할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라메트리는 ‘폴립의 자연사’를 분할할 수 없는 영혼의 개념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더 나아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로 이용하였다. 이는 영혼이 신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영혼을 과학의 영역에 포함시켰던 라메트리의 심신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라메트리는 영혼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유지되는 유기체의 운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래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적인 운동을 계속하는 10가지 실험의 예를 들었다.⁵⁸⁾ 이들 중에는 카우퍼(William Cowper, 1666-1709),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 보일(Robert Boyle, 1627-91), 스테논(Nicolas Stenon, 1631-87) 등이 한 고전적인 실험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77)가 뇌를 제거한 동물과 태아를 재료로 했던 근육의 자극감수성(irritabilité)⁵⁹⁾에 대한 실험이었다. 1747년 할러는 분리된 근육이 가해지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수축하는 성질을 자극감수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근육에 내재하는 성질로 보았으며 근육의 섬유가 자극감수성의 단위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반하여 라메트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위와 같은 원리가 온몸에 존재하며 유기체를 유지시키는 원리라고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그는 위의 10가지 실험과 더불어 주먹 앞에서 감기는 눈꺼풀, 빛의 변화에 따라 수축 또는 확장하여 망막을 보호하는 동공, 추위에 대응하여 수축하는 모공, 그리고 독극물에 대한 위장의

56) 트랑블레는 이 사실을 1744년 *Mémoire pour Servir à l'Histoire d'Un Genre de Polyp d'Eau Douce à Bras en Forme de Cornes*(Leyden)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폴립이라는 이름은 레오뮈르(René Réaumur, 1683-1757)에 의해 붙여졌다. 그러다가 1746년 린네(Garl Linné, 1707-78)에 의해 히드라(Hydra)로 명명되었다. H.M. Lenhoff and S.G. Lenhoff, "Trembley's Polyp," *Scientific American* 258(1988), 108-113; A. Vartanian, "Trembley's Polyp, La Mettrie, and Eighteenth Century French Materi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1950), 259-286.

57) *HM*, p.327(p.125).

58) *HM*, p.331(pp.129-130).

59) 자극감수성이라는 용어는 글리슨(Francis Glisson, 1597-1677)이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이 용어를 감각을 동반하지 않는 ‘자연적인 지각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할러는 1747년 행한 실험을 통하여 근육이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극감수성이라고 하였다. 글리슨에 대해서는 Owsei Temkin, "The Classical Roots of Glisson's Doctrine of Irritation,"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38(1964), 297-328; 할러에 대해서는 G. Canguilhem, "La Constitution de la Physiologie comme Science," in his *E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des Sciences* (Paris, 1968), pp.226-273을 참조할 것.

반응 등에서 볼 수 있는 반사작용의 예와 심장, 폐 등의 불수의운동의 예를 들었다.⁶⁰⁾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운동원리가 신체 전체에 존재하는 내재하는 힘이며, 그 작용은 영혼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피를 통한 영양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몸에 내재하는 운동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극감수성과 감각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라메트리기가 신경의 감각력을 일종의 자극감수성으로 생각한 점이나, 동물의 운동에서 영양공급이라는 피의 기능을 강조한 점 등은 윌리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메트리가 근육의 자극감수성으로부터 전신에 내재하는 ‘운동력(la force motrice)’의 개념을 끌어낸 데에 대하여 몇몇 학자들은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라메트리 이론의 성격과 그것이 생리학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바타니언은 라메트리가 자극감수성의 의미를 전신의 운동원리로 확장한 것이 생리학사에서 그의 독창성의 결과이며 딜레마에 빠진 생리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Hall은 이러한 바타니언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라메트리의 운동원리로서의 개념은 단지 사변적이고 연역적인 사고의 산물이었을 뿐이라고 하였다.⁶¹⁾ 사실 라메트리가 자극감수성을 운동의 원리로 확장한 것은 독창적이기는 했지만 생리학적인 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메트리 자신이 “나는 불활성이고 단순한 물질이 어떻게 활동성있고 복잡하게 조직되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듯이 그가 생리학적 탐구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⁶²⁾ 할러의 ‘자극감수성’이 실험에 기초한 제한된 의미의 생리학적 개념이었음에 반해, 라메트리에게 자극감수성은 독립된 영혼마저 존재하지 않는 기계적인 생명체를 움직이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운동의 원리’였다. 또 라메트리는 실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유기체의 운동력의 개념에까지 도달했던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자연의 철학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개념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그의 관심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과학적 성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간 이론을 세우는 데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라메트리는 당시 의학과 생물학의 성과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라메트리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는 배(胚, l'embryon)의 관찰을 예를 들어 어린 배 속에 이미 뇌, 심장, 다리 등의 축소형이 들어 있으며 ‘모든 과정은 식물체의 경우와 같은 일종의 성장’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발생의 과정에도 신비스러운 힘이나 ‘생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³⁾ 이처럼 그가 취한 발생에 대한 입장은 전성설이었는데, 알이나 정자에 들어 있는 개체의 축소형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발생이라는 전성설은 생물의 기계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지만 라메트리의 이론과 상반되는 신학적인 주장이나 물활론적인 설명들의 증거로써 이용되기도 하였다.⁶⁴⁾ 예를 들어 할러는 처음에는 전성론자였는데 트랑블레의 폴립의 실험이 알려지자 후성설로 입장을 바

60) HM, pp.333-335(pp.130-132)

61) A. Vartanian, 앞의 책, pp.82-89; Thomas S. Hall, 앞의 책, vol. II, pp.49-50을 볼 것.

62) HM, pp.344-345(p.140).

63) HM, pp. 350-351(p.144).

64) HM, pp.301-304(pp.100-102). J. Roger는 18세기 생물학사에서 전성설의 번성과 쇠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전성설은 기계론과, 후성설은 생기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J. Roger, *Les Sciences de la Vie dans la Pensée Française du XVIII^e Siècle. La Génération des Animaux de Descartes à l'Encyclopédie* (Paris, 1971); F.B. Churchill, "The History of Embryology 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3 (1970), 155-181.

꾸었다. 풀립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발생이 신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조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⁵⁾ 또 자극감수성에 대하여, 라메트리가 이를 기계적인 운동원리라고 생각했음에 반해 생기론자들은 자극감수성이야말로 형상화한 생기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라메트리의 주장에는 18세기 생물학과 의학의 한계까지도 반영되어 있었다. 라메트리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전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가 인간을 자연의 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 자연사를 탐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구조에 대한 비교에 바탕해서 아만이 농아에게 말을 가르쳤던 방법으로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에게 말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고등동물의 해부학적 구조가 인간과 매우 유사하므로 교육에 의하여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고 정신적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생물의 진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18세기의 진화의 개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⁶⁶⁾ 또 그의 주장에는 생물체들로부터 제일성을 이끌어 내려 했던 18세기의 사상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유비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식물과 동물의 중간적인 존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라메트리가 영혼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경험적, 의학적 사실들, 뇌의 구조에 대한 비교해부학적 지식, 트랑블레의 풀립에 대한 실험과 할리의 근육에 대한 실험을 포함하여 17, 18세기에 행하여진 여러 실험생리학적 결과들을 이용해서 그의 심신이론을 뒷받침하려고 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은 대부분 새롭게 알려진 것이었고 상당부분이 당시 태동하고 있던 실험생물학의 성과들이었다. 그렇지만 라메트리가 경험과 관찰을 중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생물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사변적인 설명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의사였으며 생물학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라메트리는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즈음에 실험생리학과 비교해부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심신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물이 기계처럼 움직이며 또한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동물과 같기 때문에, 인간도 역시 기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계인 인간에게 어떻게 정신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기계론」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나 일상에서 익숙한 경험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라메트리가 살았던 18세기 초에는 17세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새로운 생물학적 성과들이 누적되고 있던 반면, 운동하는 물질로써 모든 것을 설명했던 기계적 철학은 특히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쇠잔해 가고 있었다. 당시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철학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게다가 라메트리는 정신의 물질성을 근거로, 정신에 대한 모든 이론은 과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

65) 할리의 발생학에 대해서는 S.A. Roe, "The Development of Albrecht von Haller's Views on Embry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8(1975), 167-190; 생기론자들이 자극감수성을 받아들인 데 대한 논의는 J. Schiller, 앞의 글, pp.191-195를 참조할 것.

66) 18세기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Lester G. Crocker, "Diderot and Eighteenth Century French Transformism," in B. Glass et al.(eds.), *Forerunners of Darwin, 1745-1859* (Baltimore, 1959), pp.114-143을 참조할 것.

하여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여러가지 과학의 증거들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한편에는 물활론적인 체계가 있었지만 유물론자였던 라메트리는 그러한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충분히 복잡한 기계라면 정신적 능력도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계론이나 물활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라메트리는 자신의 이론이 의학과 생물학의 여러 사실들에 근거하여 세워진 인간에 대한 과학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심신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의 이론이나 그에게 반대했던 상반된 심신이론이나 모두 주어진 생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치하였지만, 그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심신이론은 유기체에 대한 유용한 이해방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의 이론이 새로운 생물학적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생명현상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이었고 또한 생물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을 밝힌 것이 되었다. 그는 물질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으나, 물질의 조직이 생명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의 문제제기는 이후 생물학에서의 연구과제가 되었다.